

## 2019 제2회 지방직 7급 국어 B책형 재미있고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제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지방직7급 B책형 문1)

- ◆ 현주가 취직이 되었다.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야.
- ◆ 지금 사는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 ◆ 재는 우리가 싫어했던 ㉢저것이 마음에 든대.
- ◆ 어르신, 제가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 ① ㉠: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 정답 및 해설

① ㉠: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O)

- ◆ 현주가 취직이 되었다. ㉠(현주가 취직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야.  
1) 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② ㉡: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X) →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X) →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X) →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관형사)

정답: ①

문제2) 다음을 고려한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7급 B책형 문2)

- ◆ 주제: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목적: 북촌 한옥 마을, 이화 마을 등의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②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실적을 분석한다.
-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 정답 및 해설

-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O)  
1) 외국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은 적절하다.

- ②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실적을 분석한다. (X)  
1)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이 주제인데, 관광 업체의 경영 실체 및 매출실적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O)  
1)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는 적절하므로 보고서의 내용으로 무방하다.

-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O)  
1)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보고서의 내용으로 무방하다.

정답: ②

문제3)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쓰인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9지방직7급 B책형 문3)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13, 279, 281, 289, 294, 306, 433, 519, 520)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 낯선 이의 집에서 숙식을 ㉠붙인다는 것은 분명 힘에 ㉡부치는 일로 보였다. 오늘은 측은한 마음에 말을 ㉢붙여 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표를 ㉣부치고 있을 뿐이었다. ㉤붙여 먹을 땅 한 평 없던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붙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13, 279, 281, 289, 294, 306, 433, 519, 520)

② ㉠, ㉡, ㉢ (X)

★ ‘부치다, 붙이다’는 매우 헛갈리므로 예를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보이 암기tip 1.) 힘 - 부 / 숙식 - 부 / 땅 - 부

☺영보이 암기tip 2.) 말 - 붙 / 정 - 붙 / 우표 - 붙

◆ 힘에 ㉠부치는 (O) / 부치다: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 말을 ㉡붙여 (O) / 붙이다: 말을 걸거나 치근대며 가까이 다가서다.

◆ 정을 ㉢붙였던 (O) / 붙이다: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 ‘붙다’의 사동사.

◆ 숙식을 ㉣붙인다 (X) → 숙식을 부치다 / 부치다: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 우표를 ㉤부치고 (X) → 우표를 붙이다 / 붙이다: 맞달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 ‘붙다’의 사동사.

◆ 붙여 먹을 땅 (X) → 부쳐 먹을 땅 / 부치다: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정답: ②

문제4)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은? (2019지방직7급 B책형 문4)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6) 글의 서술 방식 p. 119, 120, 122)

보살은 자기 자신이 불경의 체험 내용인 보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일체의 타인에게도 그의 진리를 체득시키고자 정진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한과 같은 자리(自利)를 위하여 보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이타(利他)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나한이 개인적 자각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적 자각에 입각한 것이니, 나한은 언제든지 개인 본위이고 개인 중심주의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 본위이고 사회 중심주의인 것이다.

- ① 유추      ② 묘사      ③ 예시      ④ 대조

◆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6) 글의 서술 방식 p. 119, 120, 122)

① 유추(類推):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

② 묘사(描寫):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③ 예시(例示): 예를 들어 보임.

④ 대조(對照) (O): 둘 이상인 대상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일

1) '보살은 나한과 같은 자리(自利)를 위하여 보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 이타(利他)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나한이 개인적 자각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적 자각에 입각한 것이니, 나한은 언제든지 개인 본위이고 개인 중심주의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 본위이고 사회 중심주의인 것이다'로 보아 대조의 설명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④

문제5) 다음 글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지방직7급 문5)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거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도덕적으로 응징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 훼손은 물론,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①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 ③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 정답 및 해설

①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X)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거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로 보아 글의 일부에 불과하여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아니다.

②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X)

◆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로 보아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말하지 않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주장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

③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X)

◆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로 보아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결론적으로 주장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④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O)

◆ ‘그러나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로 보아 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정보 공유를 할 때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 글의 결론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9지방직7급 문6)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건물들이 일정한 축이나 질서에 의해 배치되고, 그 중간 부분에 크고 작은 마당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려진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물이 왜소하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 그리고 장식적 요소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겸손의 건축’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

- 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②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
-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다.
- ④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 정답 및 해설

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O)

◆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려진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로 보아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 (O)

◆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로 보아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다. (O)

◆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로 보아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라 할 수 있다.

④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X)

◆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로 보아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 이해한 결과라 해야 옳다.

정답: ④

문제7)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지방직7급 문7)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p. 7, 8, 35, 38, 39, 179, 181, 188, 189, 190, 191, 228, 240, 241)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에서 -

- ① 肝膽相照      ② 磨斧爲針      ③ 昏定晨省      ④ 孤掌難鳴

◆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고사성어 초대박 적중: p. 7, 8, 35, 38, 39, 179, 181, 188, 189, 190, 191, 228, 240, 241)

① 肝膽相照(간담상조): 肝(간 간) 膽(쓸개 담) 相(서로 상) 照(비칠 조)

a)의미: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서 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

② 磨斧爲針(마부위침): 磨(갈 마) 斧(도끼 부) 爲(할 위) 針(바늘 침).

a)의미: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라는 뜻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끊임 없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

③ 昏定晨省(혼정신성) (O): 昏(어두울 혼) 定(정할 정) 晨(새벽 신) 省(살필 성).

a)의미: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 유의어 < 반포지효, 반포보은, 오조사정, 원결종양, 출필고반필면, 반의지희 >

1)反哺之孝(반포지효): 反(돌이킬 반/돌아올 반) 哺(먹일 포) 之(갈 지) 孝(효도 효)

a)의미: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

2)反哺報恩(반포보은): 反 (돌이킬 반/돌아올 반) 哺(먹일 포) 報(갚을 보) 恩(은혜 은).

a)의미: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恩惠)에 보답(報答)함.

3)烏鳥私情(오조사정): 烏(까마귀 오) 鳥(새 조) 私(사사 사) 情(뜻 정).

a)의미: '까마귀가 새끼 때 어미가 길러 준 은혜(恩惠) 의 정'이라는 뜻으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마음.

4)願乞終養(원결종양): 願(원할 원) 乞(빌 걸) 終(마칠 종) 養(기를 양)

a)의미: 부모님이 세상을 작별하는 날까지 봉양(奉養)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성(孝誠)을 보이는 것을 말함.

5)出必告反必面(출필고반필면): 出(날 출) 必(반드시 필) 告(고할 고) 反(돌이킬 반/돌아올 반) 必(반드시 필) 面(뵈 면)

a)의미: '외출할 때는 부모님께 반드시 출처(出處)를 말씀드리고 또한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부모님의 얼굴을 뵈고 자기가 안전(安全)하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는 뜻으로, 외출 후 귀가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알린다는 말.

6)斑衣之戲(반의지희): 斑(아롱질 반) 衣(옷 의) 之(갈 지) 戲(희롱할 희)

a)의미: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일흔 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 다녀 보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④ 孤掌難鳴(고장난명): 孤(외로울 고) 掌(손바닥 장) 難(어려울 난) 鳴(울 명)

1)의미: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정답: ③

문제8)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7급 문8)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37, 333)

- ① 부장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 ② 어머니님,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 ④ 시장님, 저에게 여쭙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37, 333)

- ① 부장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O)
  - 1) 넥타이는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므로 이 문장은 옳다.
  - 2) 간접높임: 존경의 대상이 주어 명사구에 소속된 사물을 높일 때 실현되는 경어법. 예를 들어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시다.”에서 서술어 ‘많으시다’가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수염’이므로, 실제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와는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 ② 어머니님,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O)
  - 1) 시부모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낮추는 게 옳으므로 ‘안 들어오셨습니다’를 쓰지 않고 ‘안 들어왔습니다’로 쓴 것은 옳은 표현이다.
-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O)
  - 1) ‘-께서, 주셨습니다’ 등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높임이 올바르게 쓰였다.

④ 시장님, 저에게 여쭙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X) → 물어보셨던

1) 여쭙다: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린다.

◆ ‘여쭙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씀을 올리는 경우이다. 따라서 시장님이 아랫사람인 나한테 말하는 경우이므로 ‘묻다(활용: 물어, 물으니, 묻고)’가 옳다.

정답: ④

문제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7급 문9)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49, 157, 163)

-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
- ② 나는 사과를 천 원어치 샀다.
-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
-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

◆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149, 157, 163)

-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 (O)
  - 1) ‘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쯤’은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② 나는 사과를 천 원어치 샀다. (O)
  - 1) ‘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어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 (X) → 스무V살V남짓

1) '살'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남짓'도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 (O)

1) 이 문장에서 '이십'은 관형사로 쓰였으므로 명사 '세기'와 띄어 쓰고, '경'은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정답: ③

문제1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0)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0, 57, 74, 24, 58)

(가)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나)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널 비 예 아즐가 널 비 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에서 -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20, 57, 74, 24, 58)

(가) 公無渡河(공무도하) < 그대 물을 건너지 마오, >

公竟渡河(공경도하) < 그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

墮河而死(타하이사) < 물에 빠져 죽으시니 >

當奈公何(당내공하) < 이제 그대 어찌하리, >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고조선 때의 노래. 백수(白首) 광부(狂夫)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는데, 이를 괭리자고(霍里子高)가 듣고 그의 아내 여옥(麗玉)에게 들려주자, 여옥이 공후(箜篌)를 연주하면서 곡조를 만들어 불렀다는 기록이 중국 진(晉)나라 최표(崔豹)의 <고금주>에 전한다. 작자를 여옥으로 보는 설도 있다. ≡공후인.

\* 물에 빠진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쓰라림.

\* 집단적인 노래가 아닌 개인적인 노래, 독백과 한탄(恨歎).

\* 물: '죽음'의 이미지[심상(心象)]가 들어있다.

(나)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셔 >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훈다 샤공아 < 배 내어 놓았는가, 사공아 >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네 가지 아즐가 네 가지 럼난디 몰라셔 < 네 각시 음란한지 몰라셔 >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널 비 예 아즐가 널 비 예 연즌다 샤공아 <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는가, 사공아 >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 배 타면 꺾으리오다, >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에서 -

\* 서경별곡(西京別曲): 고려 시대의 속요. 서경에서 임과 이별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남녀상열지사(남녀상열지사)로 지목되어 산삭이 되기도 하였다. 그 원문은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X)

1) (가)의 화자는 임이 물에 빠져 죽자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임과의 동행을 선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2) (나)의 화자는 서경에서 임과 이별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이별을 선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X)

1) (가)의 '河'은 임이 죽는 장소, (나)의 '강'은 임과 이별의 장소이다.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O)

1) (가)에서는 '그대 물을 건지 마오 / 그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 물에 빠져 죽으시니 / 이제 그대 어찌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 죽음을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나)에서는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 배 내어 놓았는가, 사공아 / 네 각시 음란한지 몰라서 /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는가, 사공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X)

1)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은 알 수 없다.

정답: ③

문제11)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2)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짖 참이었? 이자를 생각해 봐! 놀랄 것이 못이여

연 철: (비꼬는 투로) 놀랄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었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못이라고? 저놈이 어따 대고 비양질이여

곰 치: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 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 치: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 치: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겼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댁: (떨쩍 뛰며) 왔따! 든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 치: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 천승세, 만선 에서 -

① ㉠: 체념 조로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③ ㉢: 지친 듯    ④ ㉣: 애걸 조로

◆ 정답 및 해설

\* 천승세의 '만선': 천승세가 지은 희곡. 만선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우직한 한 어부의 집념과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비극적 현실과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짖 참이었? 이자를 생각해 봐! 놀랄 것이 못이여

연 철: (비꼬는 투로) 놀랄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었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못이라고? 저놈이 어따 대고 비양질이여

곰 치: ( ㉠체념 조로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 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 치: ( ㉡신경질적으로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 치: ( ㉢지친 듯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덕: (펄쩍 뛰며) 웬따! 무슨 말씀이시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예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 ㉣애걸 조로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① ㉠: 체념 조로 (O) -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임제순이 을인 곰치에게 호통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체념 조'로 대답하고 있다.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X) → 신경질적으로

1) 선주 임제순에게 빚을 진 곰치는 소위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제순의 눈치를 보는 곰치로서는 성삼이 하는 말에 임제순의 신경을 건들까봐 성삼에게 입단속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경질적으로'가 들어가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 지친 듯 (O)

1) 임제순이 갑의 위치에서 다그치며 이름을 부르니 몸과 마음이 '지친 듯' 대답하고 있다.

④ ㉣: 애걸 조로 (O)

1) 임제순에게 빚을 진 곰치는 만선의 기회를 놓칠까봐 초조한데, 선주 임제순이 배를 묶겠다고 '애걸 조'로 부탁하고 있다.

정답: ②

문제12)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2)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 ㉠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 ㉡ )가 컸다.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 ㉢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 ㉣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 ① 시행 | 격차 | 기반 | 고양 |
| ② 시행 | 편차 | 기반 | 지양 |
| ③ 중단 | 격차 | 방식 | 지양 |
| ④ 중단 | 편차 | 방식 | 고양 |

◆ 정답 및 해설

- ① 시행    격차    기반    고양

1) 시행(施行): 실지로 행함.

◆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로 보아 ‘언어 정책이 시행되었다’가 적절하다.

2) 격차(格差): 가격이나 자격, 품등 따위의 서로 다른 정도.

◆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 ㉡ )가 컸다.’로 보아 ‘격차’나 ‘차이’가 적절하다. 편차(偏差)는 수치, 위치, 방향 따위가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나 크기를 말한다.

3) 기반(基盤):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모스크바어를 ( ㉢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로 보아 ‘기반’이 적절하다. 방식(方式)은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이란 의미이다.

4) 고양(高揚):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복돋워서 높임.

◆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 ㉣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로 보아 ‘고양(高揚)’이 적절하다. 지양(止揚)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정답: ①

문제1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3)

㉠ 별 헤는 밤

㉡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

㉢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부터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 '울산전파 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울산광역시 생활과학고실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여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 축제이다. ... (하략)

- ○○신문, 20○○. ○○. ○○. -

< 보기 > 신문 기사에서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대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 ② ㉡: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 ③ ㉢: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 ④ ㉣: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 정답 및 해설

① ㉠: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X)  
 1) ㉠은 단순히 제목으로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 아니다. 한편 전문(前文)이란 한 편의 글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글을 의미한다.

② ㉡: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X)  
 1) 사건의 결과는 제시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O)  
 1) 육하원칙의 요소 중 '언제(11일과 12일 저녁), 어디서(울산과 부산), 무엇을(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 어떻게(잇따라 펼쳐진다)'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2) 육하원칙(六何原則):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른다.

④ ㉣: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X)  
 1) 별 축제에 대해 상술하는 것으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은 아니다.

정답: ③

문제14)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4)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 어디 뺨발 구석이거나 /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 흔들여 깨우면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 너를 보면 눈부셔 /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이성부: 시인(1942~2012). 광주광역시 출신. 1959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바람>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실 참여적인 경향을 띠면서도 서정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시들을 창작하였다. 주요 작품집으로는 《이성부 시집》, 《우리들의 양식》, 《백제행》, 《야간산행》, 《지리산》 등이 있다.

\* 이성부의 '벼'(1974): 이성부의 두 번째 시집 《우리들의 양식》에 실린 시이다. 이 시는 암울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봄처럼 눈부신 새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O)
  - 1) '온다'를 반복함으로써 봄이 반드시 온다고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O)
  - 1) '온다'로 보아 단정적 어조로,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올 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X)

- 1)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 너는 더디게 온다. /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로 보아 눈부신 봄이 올 것임을 믿고 있어 희망적인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할수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O)
  - 1) '~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로 보아 봄이라는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문제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5)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굽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시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다.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보그,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O)

1) '그 변화의 굽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시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로 보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변화하며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O)

1)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로 보아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X)

1)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보그,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로 보아 인간이 상상하면 그것은 곧 실현되어 세계의 모습은 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O)

1)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로 보아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16)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6) (2019영보이 한자 초 대박 적중: p. 40, 50, 51, 128, 129, 122, 130, 131, 152, 153)

태어날 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관해서 ㉢염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는 내면을 드러내는 인상이 바뀔 수 있다.

- |      |     |     |    |
|------|-----|-----|----|
| ㉠    | ㉡   | ㉢   | ㉣  |
| ① 殞命 | 自書傳 | 厭世的 | 成實 |
| ② 運命 | 自書傳 | 鹽稅的 | 成實 |
| ③ 殞命 | 自敍傳 | 鹽稅的 | 誠實 |
| ④ 運命 | 自敍傳 | 厭世的 | 誠實 |

◆ 정답 및 해설 (2019영보이 한자 초대박 적중: p. 40, 50, 51, 128, 129, 122, 130, 131, 152, 153)

④ 運命 自敍傳 厭世的 誠實

1) 運命(운명): 運(옮길 운) 命(목숨 명) / 발음: [운:명](긴소리)

a) 의미: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의미하는 ‘運命(운명)’은 ‘運(옮길 운) 命(목숨 명)’을 쓰는데, ‘運(옮길 운)’에는 ‘이(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가고 ‘命(목숨 명)’은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내 인생은 왜 이렇까? 탄탄대로의 출셋길을 달렸으면 좋겠지만 내 運命(운명)은 쉬엄쉬엄 갈(이: 쉬엄쉬엄 갈 착) 팔자인가 보다.

\* 동음이의어 < 운명 >

1) 殞命(운명): 殞(죽을 운) 命(목숨 명) / 발음: [운:명](긴소리)

a) 의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을 의미하는 殞命(운명)은 ‘殞(죽을 운) 命(목숨 명)’을 쓰는데, ‘殞(죽을 운)’에는 ‘歹(살 바른 뼈 알)’이 들어가고 ‘命(목숨 명)’은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그 거지는 살 바른 뼈(歹: 살 바른 뼈 알)처럼 아무 것도 못 먹은 모습으로 殞命(운명)하였다.

2) 自敍傳(자서전): 自(스스로 자) 敍(펼 서/차레 서) 傳(전할 전)

a) 의미: 작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

◆ 自敍傳(자서전)은 ‘自(스스로 자) 敍(펼 서/차레 서) 傳(전할 전)’을 쓰는데, ‘敍(펼 서)’에는 ‘攴(칠 복)’이 들어간다. < cf. 書(글 서) >

☺영보이 암기tip) 그 독재자의 自敍傳(자서전)에는 자기가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마구 쳤다고(攴: 칠 복) 적혀 있다.

3) 厭世的(염세적): 厭(싫어할 염, 누를 엮, 빠질 암) 世(인간 세) 的(과녁 적) / 발음: [염:세적]

a) 의미: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또는 그런 것.

◆ ‘厭世的(염세적)’은 ‘厭(싫어할 염) 世(인간 세) 的(과녁 적)’을 쓰는데, ‘厭(싫어할 염)’에는 ‘犬(개 견)’이 들어가고 ‘世(인간 세)’는 그 자체로 쓴다. < cf. 鹽(소금 염), 稅(세금 세, 벅을 탈, 기뻐할 열, 수의 수, 추복 입을 태) >

☺영보이 암기tip) 인간(世: 인간 세)이 계속 동물을 학대(虐待)한다면 개(犬: 개 견)들도 厭世的(염세적)으로 변할 수 있다. 멍멍!! 다 물어버릴 거야!!

4) 誠實(성실): 誠(정성 성) 實(열매 실, 이룰지)

a) 의미: 정성스럽고 참됨.

◆ 誠實(성실)은 ‘誠(정성 성) 實(열매 실)’을 쓰는데, ‘誠(정성 성)’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간다. < cf. 成(이룰 성) >

☺영보이 암기tip)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言: 말씀 언)을 誠實(성실)히 전하셔서 교회 신도가 급격히 늘었다. 정답: ④

문제17)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7)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샨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솔 세발솔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길길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달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뢰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웁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誣)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곧이듣겠느냐”

- 박지원, 호질 에서 -

-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박지원의 ‘호질(虎叱)’ : 조선 정조 때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 호랑이를 통하여 도학자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는 내용으로, 《열하일기》에 실려 있다.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X)

1)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샨별이 반짝이는데'로 보아 자연의 묘사를 한 것이라 착각할 수 있으나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작품의 주제는 도학자의 위선을 꾸짖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O)

1)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솥 세발솥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로 보아 북곽 선생은 동리자와 남녀 간의 관계를 맺으려는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O)

1) 범을 의인화하여 겉으로는 학식 있고 고상한 척하며 점잖은 선비처럼 행동하고 속으로는 비굴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O)

1)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로 보아 선비(儒: 선비 유)를 아첨꾼(諛: 아첨할 유)으로 조롱하여 언어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답: ①

문제18)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2019지방직7급 문18)

-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 ③ 요즈음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 정답 및 해설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X) → 보낸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1) '투고하다'에는 '원고를 써서 보내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고'가 중복된다. 따라서 '투고한 원고'가 아니라 '보낸 원고'로 고쳐야 적절한 문장이 된다.

2) 투고하다: 의뢰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내다.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X) →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었다.

1) 도보(徒步)는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을 뜻한다. '걷다'라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길거리를 걸었다'로 고쳐야 중복이 없는 적절한 문장이 된다.

③ 요즈음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O)

1) 중복이 없는 적절한 문장이다.

cf. 과반수 이상 (X) → 반수 이상 <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다는 의미이므로 '이상'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과반수'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반수 이상'으로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X) → 자매결연한 분들이다.

1) '자매결연하다'는 '맺다'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맺은'을 넣으면 중복된 의미가 된다. 따라서 '자매결연하다'만 써도 충분하다.

2) 자매결연하다: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다.

정답: ③

문제19)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지방직7급 문19)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들 이등(伊藤)의 시정 방침은 완전 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등이 한국에서 주재하며 대한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줄거리만을 말하고자 한다. ... (중략) ...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증오해 마지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그를 제거한 것이다.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X)

1)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로 보아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고 나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X)

1)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로 보아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말하고 있다.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X)

1)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로 보아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은 잘 알고 있으나 완벽하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동양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이 바로 이등이라 생각하고 있다.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O)

1)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로 보아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지방직7급 문20)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X)

1)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로 보아 언어 자살은 식민지 지배 전략이 아니라 외부의 강압 없이 이루어진다.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O)

1)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로 보아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O)

1)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보아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O)

1) 마지막 문장('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 영보이 저서 -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판매 중 >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판매 중 >
-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20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20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mailto: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